북스

Books

주강현 민속연구소장 20년 연구 집대성 '돌살…' '두레…' 펴내

역사민속학자인 주강현 한국민속연구소장이 20여 년간의 연구를 집대성한 책 '돌살-신이 내린 황금그물'과 '두레-농민의 역사'를 동시에 펴냈다.

철저한 현장 답사와 고증으로 써내려간 책 곳곳에는 저자의 땀이 베어있다. 독자들은 각각 712쪽, 835쪽이라는 엄청난 책의 두께에 한 번 놀라고, 책 속에 배치된 사진들을 모두 저자가 답사하면서 찍은 것이라는 사실에 한 번 더 놀라게 된다.

돌살은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 쪽으로 볼록하게 쌓은 돌담을 말한다. 밀물과 함께 바닷가로 밀려온 물고기들이 썰물을 따라가다 돌담에 갇히는 것.

두레는 모내기로 인해 발생한 농민 공동체로 논두렁을 두고 이뤄진 농민들의 고된 삶과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를 알려주고 있다.

〈들녘·각권 3만5천원〉

거작 낳은 창작의 산실 생생한 産苦의 흔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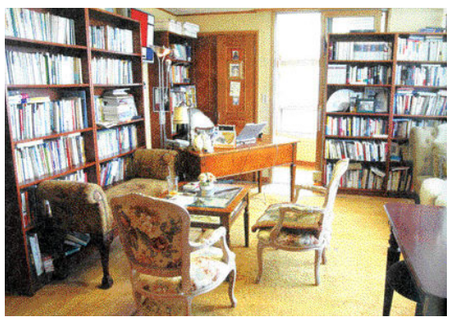
작가의 방 박래부 지음

작가들은 '작품'으로 말한다고 하지만 독자들은 '작가'가 궁금하다. 독자들은 그들이 어떤 공간에서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쓰고, 그들의 서가에는 어떤 책들이 꽂혀 있는 지 들여다 보고 싶어한다.

'김훈-박래부의 문학기행'으로 유명한 한국일보 박래부 논설위원이 박신우(사진) 안희원(일러스트) 씨와 함께 독자들의 궁금증을 대신 풀어줬다. 그는 책 '작가의 방'을 통해 이문열·김영하·강은교·공지영·김용택·신경숙 등 6명의 서재 풍경과 그들의 내밀한 속 이야기를 생생히 포착했다.

이문열이 살고 있는 '부악문원'에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서재가 있다. 장서는 1만5천권 가량. 그의 서재는 별 장식도 없고 미술·영화 등 예술서적도 눈에 띄지 않는다. 저자는 그의 서재가 '예술지향적이기 보다 철학지향적인 작품과 닮아 있다'고 평했다. 그는 특이하게도 가장 외진방, 창문도 없는 제일 어두운 지점에 책상을 놓고 큰 의자위에 올라앉아 책상다리를 하고 글을 쓴다.

'책은 나의 오락'이라고 말하는 공지영은 예수 초상화와 성당 사진을 보며 '기를 받는다'. 추리소설을 좋아해(언젠가 추리소설을 쓰고 싶어한다) '북하우스'의 시리즈물을 갖고 있고 요리와 여행관련 책도 다수다. 중학교 때 '토지'를 읽고 글 쓰는 이를 동경했던 그녀답게 박경리 전집이며 이문열·오정희·김원일·황석영의 책은 작가별로 갖춰두고 있다.



공지영의 방

우리시대 대표작가 6인 책과 서재 속 이야기

신경숙의 방

왠지 속내를 잘 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신경숙이 자신의 집을 공개한 건 의외다. 폭 1.5m, 길이 4m의 '널따란' 책상에서 글을 쓰는 그녀는 식물·동물관련 책을 좋아하고, 가끔은 집필실에 놓아둔 기타를 치며 휴식을 갖는다.

그밖에 꽃과 북과 징이 놓여 있는 시인 강은교의 부산 집필실, 라이카 카메라와 스파이 관련 서적이 눈에 띄는 김영하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구실, 학교와 임실 생가와 전주 집에 분산된 김용택의 책장 등을 만날 수 있다.

카메라 앵글에 잡힌 작가들의 책에는 '이야기'가 있다. 어떨 땐 한달에 100만원어치의 책을 구입하는 공지영은 1년에 한번 책장에 맞춰 넘치는 책을 버리지만 '트로츠키' '자본론' 등 대학시절 읽었던 책들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김영하의 책장에는 결혼을 허락할 때 장모가 언급했던 존 파울즈의 '프랑스 중위의 여자'가 있고 신경숙의 '외딴방'속 희재 언니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그녀의 책장에 꽂힌 '여공 1970년'은 왠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공지영의 6년여에 걸친 절필 사연, '미술'에 관심을 갖게 해준 김영하의 실연담, 젊은이들과 충돌했던 이문열의 속내 등 내면 풍경도 들여다 볼 수 있는 게 이 책의 장점이다.

책을 덮고 나면 자신의 '책장'에 눈길이 머문다. 그리고 근사한 책장과 근사한 서재를 언젠가는 갖게 될 거라는 꿈을 꾼다. 작가들의 방에서 '발견'한 책들을 읽어보고 싶은 욕구도 함께다. 〈서해문집·1만9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문열의 방

도박 거다 리스 지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을 때, 군인들은 그의 옷을 가져갔고…. 이렇게 말했다.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주사위 던지기를 하자."(요한복음 19장 23~24절)

오늘날에도 도박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뤄지지만 고대 로마에서도 도박은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공공 장소인 공회당 기둥에서까지 임시로 그린 도박판이 발견될 정도다.

도박의 역사가 오랜 만큼 다양한 형태의 억압·비난도 함께 했다. 종교 개혁시대에는 도박은 죄의 구현으로 간주됐고, 계몽주의 시대에는 비합리성의 전형이 됐다. 오늘날 과도한 도박은 질병으로 분류된다.

이 책은 로마 시대부터 현대의 라스베이거스까지 모든 종류의 도박을 논하고 있다. 저자 거다 리스(Gerda Reith)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있는 세계가 '도박적'이라고 정의한다.

로마제국서 라스베이거스까지 우연과 확률 그리고 기회의 역사

세계는 이미 거대한 카지노이며,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우연'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호모 알레아토르(homo aleator), 즉 도박적 인간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현재 도박에 대한 논의가 소수 도박 중독자에게만 국한돼 있어 대다수 도박하는 사람들이 논의에서 배제돼 왔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플라톤이 '맨 처음 놀이를 인간의 본성 중에서 최상의 부분'으로 인정한 긍정적 입장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서의 도박의 본성과 도박 경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책의 전반부에서는 다양한 도박 게임의 발전과정에 대한 문화사를 다루고, 여러 게임이 행해졌던 사회·경제적·지적 풍토를 살핀다. 후반부에서는 다양한 도박 게임의 공통적 특성을 바탕으로 도박의 사회적 구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한편, 도박자의 경험과 사고로 시선을 옮긴다. 〈꿈엔들·1만8000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길위의 삼국유사=연세대 고운기 교수가 삼국유사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며 쓴 삼국유사 답사기다. 불교가 처음 전파되었던 법성포에서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이 머리를 깎았던 강원도의 진전사까지 삼국유사의 현장을 전한다. 〈미래M&B·1만 5천원〉

▲동양신화 백과사전=종교 저널리스트인 레이첼 스톰이 동양의 신들과 종교를 백과사전 형식으로 엮었다. 1부에서는 수메르 등의 중동신화, 2부 인도, 스리랑카 등 힌두교 신화, 3부 중국의 도교·민간신앙, 일본의 신 등을 소개한다. 〈루비박스·2만 8천900원〉

▲사춘기를 둘러싼 모험='상실의 시대' 등으로 사랑받고 있는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문학과 심리치료 사례를 접목시켜 사춘기의 심리적 외상 치유를 시도하고 있는 책. 저자 이와미야 게이코는 하루키 작품에 등장하는 사춘기 소년·소녀들의 이야기 속에 심리치료의 에센스가 담겨있다고 주장한다. 〈문학사상사·8천500원〉

▲또 다른 교양=저자 에른스트 페터 피셔는 기술문명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자연과학의 이해는 기초적인 소양에 가깝다고 말한다. 빅뱅이론에서 초끈이론까지 핵심키워드를 통해 과학 상식을 짚는다. 〈이레·2만 8천원〉

▲왜 니체를 읽는가=니체 전집 번역에 참여했던 정동호, 김정현 등 10명의 니체 연구자들이 일반 대중을 위해 출간한 책이다. 니체의 삶과 사상, 유고 논쟁, 니체 사상의 영향, 한국의 니체 철학 수용과 연구사 등 4부로 나뉘어 있다. 〈책세상·2만 5천원〉

▲우리는 왜 축구에 열광하는가=장원재 숭실대 문예창작학과 교수가 축구 문화론에 관한 책을 펴냈다. 해박한 축구 지식과 애정을 바탕으로 축구문화의 정점인 월드컵을 통한 축구 문화사가 펼쳐진다. 저자는 축구가 현대인이 잃어버린 축제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일종의 제의(祭儀)라고 표현한다. 〈경덕출판사·9천800원〉

▲코르다의 쿠바, 그리고 체=체 게바라를 세상에 알린 사진작가 알베르토 코르다의 책으로 80여 편의 사진을 만날 수 있다. 코르다가 찍은 체 게바라의 사진은 로열티를 받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현대문학·1만 3천원〉

▲배틀, 전쟁의 문화사= 미국의 군사통으로 알려져 있는 존 린이 전쟁을 문화적인 시각에서 조명한다. 저자는 고대, 중세, 근대 초, 근대 말로 각 시기를 구분해 시대적인 균형을 꾀하고 있다.. 〈청어람 미디어·2만8천원〉

▲아메리카 자전거 여행=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미국을 자전거 하나로 횡단한 저자 홍은택의 미국 횡단기. 동쪽에서 서쪽으로 6천400km의 길을 트렌스 아메리카 트레일을 따라 달린 이야이다. 미국 횡단기에서 만난 수많은 라이더들과 미국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한겨레출판·1만 5천원〉